

# ASEAN의 對 ASEM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양 승 윤\*\*

- I. 서론
- II. ASEM의 출범과 ASEAN의 역할
- III. ASEAN의 對 ASEM 정책목표
- IV.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
- V. 결론

## I. 서론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국제질서는 경제요소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군의 세력분포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다자접근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특징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이 증대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적 대결이 감소되고, 분쟁예방과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외교를 통한 안정지향적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이의 추구를 위한 무한경쟁과 패권의 분산에 따른 주도적 리더십의 부재와 새로운 안보체제의 미성숙이 야기한 전환기의 불확실성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Taylor, 1993) 이와 함께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협력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또는 국력의 분포에 따라 지역 단위의 새

---

\* 이 소논문은 작성과정에서 배공찬 교수(외교안보연구원)와 이요한 박사(호서대)의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익명의 두 분 심사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적절한 교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 교수(동남아학)

로운 질서를 구축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국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아시아도 2차대전 종전 이래로 이 지역에 존재하였던 대결적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냉전구조 청산에 따르는 동서 양자관계의 재정립, 구(舊)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역내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일본과 중국의 새로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의 부상 등은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동휘, 1996)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제규모의 경이적인 성장을 시현(示顯)한 동아시아국가들에게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동아시아 경제체제에 독자적인 블록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Harding, 1994) 또한 동아시아국가들이 겪었던 최근의 경제위기는 서방국가들의 자본력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이 취약했다는 공통적인 인식 아래 역내 국가들의 공동협력체의 출현을 모색하게 하였다.(박광주, 1998)

1967년에 창설된 ASEAN은 동남아 몇몇 약소국가들의 지역협력 실험장으로부터 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협력기구로 변모하였다. 동남아 10개국은 1999년에 이르러 'ASEAN 10'을 완성함으로써 지역협력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ASEAN은 동남아가 가진 5억 1,480만 인구(1999년)의 역동적인 시장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과 경쟁력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상품화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분야의 확고한 우위를 갖추고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이해가 마주 닿는 지역의 하나가 동남아이다. 그러므로 APEC과 ASEM 목표의 공통분모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역협력 기구는 ASEAN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첫째, ASEM은 ASEAN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협력기구 결성에 적극성을 띄게하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역내의 문화적·이념적 이질성과 역외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다소 시일이 요구될 것이나, 경제협력에 필수적인 상호보완 작용이 정착되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 II. ASEM의 출범과 ASEAN의 역할

### 1. ASEAN의 지역협력 정책

ASEAN은 개도국 지역기구 중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제럴드 탄, 1995) ASEAN 10이 형성되어 동남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켰으며, 이는 ASEAN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ASEAN은 다자주의(多者主義) 정책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으로는 지역협력 정책을 주도하면서 적극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협력에 대한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띠는 경우도 많았다.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MC: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와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3 (한·중·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등의 출범은 분명하게 ASEAN이 주역이었다.(M.C. Abad, Jr., 1996)

ASEAN의 10개 회원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태국을 제외하고 피식민통치의 경험을 하였다. 독립 이후에도 동남아는 강대국에 의해서 역내 지역질서가 좌우되어 항상 대립과 반목이 존재해 왔다. 이에 ASEAN은 지난 1967년 창설 이래로 역내국가의 단결을 통하여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을 보호하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진력하였다.(양승윤, 1996)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SEAN은 다자주의 정책에 주도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 ASEAN PMC와 ARF에 미국·러시아·EU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대화의 장(場)을 범세계적·범이데올로기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중국해(南中國海) 문제를 ASEAN의 토론의제로 삼는데 성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평화적 해결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Godwin, 1994) 또한, ASEAN은 금융위기라는 극

심한 위기 속에서도 ASEAN+3을 성사시킴으로써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 온 동아시아경제협력의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를 사실상 실현시켰다. ASEAN은 지역협력 문제에 대한 단결과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내용과 의제에 따라서는 역외국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전략으로 다자주의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이 항상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ASEAN은 일본이 1980년 제안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협력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정치·경제·군사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강대국과 같은 레짐을 적용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지향하는 만큼 지역협력에 대한 참여는 회원국 간의 상호 영향력을 더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 간의 관계 악화는 외교사절 철수의 방법으로 일차 대응할 수 있으나, 다자기구는 성격이 다르다. 일단 지역협력에 참여하게 되면 기구의 협력 방향이 자국에 불리하게 전개되더라도 이탈하거나 일방적으로 탈퇴하기 어렵다.(Crone, 1992)

다음으로, 국제정치경제의 남북문제라는 구조 속에서 지역협력은 개도국들의 문제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아프리카, 미국은 중남미, 일본은 동남아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해당 지역 개도국들의 공동전선을 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를 약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ASEAN은 위와 같은 일본의 의도를 포함하는 지역협력 행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변진석, 1996)

ASEAN이 ASEM에 임하는 외교정책에서도 이러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ASEAN은 ASEM 창설을 주창하고 제 1차 총회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측면을 보였다. 그러나 ASEM의 제도화에 반대하였고, 인권 및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의제에서 제외하는 등 ASEM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2. ASEAN-EU 관계와 ASEM

EU와 ASEAN 간의 오랜 교류사를 돌이켜 볼 때, ASEM의 출범에서 ASEAN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유럽과 동남아는 과거 식민시대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역은 식민통치 시대가 종식된 이후에도 정치와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과거의 지배자·피지배자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는 특별한 유착관계를 지속해 왔다.

ASEM의 선구적 형태는 1972년부터 비공식 대화가 시작된 후 1978년에 이르러 공식화된 ASEAN-EU 장관회의였다. 이 회의는 1987년 11월 공동협력위원회(Joint Cooperation Committee)를 구성하고 최근인 1997년까지 격년으로 개최되었는데, 외무장관과 경제장관 그리고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1980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 2차 ASEAN-EEC(당시)회의는 'EEC와 ASEAN 간의 협력을 위한 합의(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Members of ASEAN)'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두 지역 간의 대화채널이 제도화되었다.(Dent, 1998)

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무역·경제·개발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장관 및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는 ASEAN-EEC 공동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면에서 EU-ASEAN 대화는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1995년까지 양 지역 간의 무역총액은 5배나 증가하였으며, ASEAN은 EU 수입의 6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 분야 이외의 문제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동(東)티모르 문제에 대한 포르투갈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면과 이에 따른 ASEAN의 묵시적 동조는 비(非)경제분야에서 양 지역 간의 협조관계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2년 필리핀에서 열린 ASEAN-EU 외무장관회담에서는 기존 협정의 한계를 공감하면서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80년에 체결된 ASEAN-EU 협정은 두 지역 간의 최초 협정의 의미를 갖지만, EU가 ASEAN을 단순한 개발도상국 차원으로 상대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노정(露呈)하게 된 것이다.

EU 중심의 유럽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참여 정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1994년 발표된 신(新)아시아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EU의 의도가 공개되었고, 같은 해 11월 독일에서 열린 EU-ASEAN 외무장관회담에서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확대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European Commission, 1994)

위와 같은 분위기가 곧 ASEM 구상으로 연결되었는데, 싱가포르의 고촉동(吳作棟)수상이 이를 주도하였다. 고촉동 수상은 1994년 프랑스 방문 중에 ASEM구상을 공식 제기하였고, 이어 1995년 1월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유럽과 균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역설하기에 이르렀다.(Goh, Chok-Tong, 1995)

ASEM에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의 한·중·일 3국 중 일본은 미국과의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기존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의식하여 ASEM 출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 또한 다자간 국제회의에 대한 체제적인 거부감과 피해의식으로 전면에 나서는 데 주저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ASEM의 의제 선정과 후속 사업의 구상 및 실행에 있어 ASEAN은 자연스럽게 APEC가 만들어진 이후 새로운 국제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 III. ASEAN의 대 ASEM정책목표

#### 1. ASEAN의 단결과 주권 강화

ASEAN이 다양한 지역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일관된 외교정책 목표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주권(sovereignty)·단결(unity)이었다.(Eero Palmujoki,1997) ASEAN이 ASEAN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본 원칙들은 충실하게 지켜졌다. ASEAN의 '만장일치제'와 '내정불간섭 원칙'은 협력 수준이 빠르게 진전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ASEAN의 결속에 있어 이들 원칙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던 것이고, 동남아의 ASEAN화(ASEANization of Souththeast Asia)를 이끄는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다.

EU와 ASEAN은 각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 EU는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을 중심으로 서구적 가치관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ASEAN은 지역협력의 역동성에 의해 당사국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미얀마·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은 서구적 가치관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ASEAN은 이들 국가의 가입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ASEAN이 미얀마·캄보디아의 국내적 상황을 전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역내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Kishore Mahbubani, 1995)

EU-ASEAN 관계 발전과 ASEM의 형성과정에서도 양 지역의 가치는 특히 두 가지 문제에서 상충되었다. 하나는 1977년 인도네시아가 강제합병한 이래로 포르투갈이 계속 제기해 온 동(東)티모르 문제였고,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미얀마의 ASEAN 가입 문제였다. EU가 전통적으로 대외 협력관계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은 '인권'과 '민주주의'였는데, 특히 미얀마에 대해서는 이를 구실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ASEAN의 입장은 EU와 상반되었다. ASEAN은 동티모르 문제를 인도네시아의 국내문제로 인식하였으므로, 따라서 이에 대한 간섭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얀마의 문제에 대해서는 ASEAN의 단결과 '하나의 동남아'라는 인식차원에서 접근하였다.

ASEAN과 EU의 현격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 1차와 2차 ASEM 총회에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ASEAN의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 정상들은 ASEM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equal partnership)의 상호존중(mutual respect), 상호이익(mutual benefit)의 기초 위에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ASEM은 개방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회원국의 확대는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성급한 제도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ASEM은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와 인식을 제고

하며 공동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의 발굴에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넷째, ASEM은 정치대화 촉진·경제협력 강화·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등 3개 주요 분야를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ASEM이 어느 한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ASEM을 비공식 과정(informal process)으로 규정하여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ASEAN의 기본적인 지역주의 정책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진국에 요구에 의해서 ASEAN의 주권과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제 1차 방콕 ASEM 총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사전에 이루어진 양측의 격렬한 여론전(輿論戰) 끝에 제외되었는데, 이는 ASEAN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Eero Palmujoki, 1997) ASEM의 몇몇 유럽국가가 일부 아시아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관계 증진방안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ASEAN은 1997년 예정대로 미얀마를 가입시켰으며,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동남아(ASEAN 10)'를 실현하였다. 즉, ASEM을 통한 유럽과의 관계확대를 모색하면서도, ASEAN은 ASEAN 고유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ASEM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기존 형태의 ASEAN-EU 장관회의를 존속시킴으로써 ASEAN 고유의 메카니즘을 계속 강조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ASEM은 또한 ASEAN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ASEM 회원국들은 UN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별도의 모임을 갖고 UN의 개혁에 대해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ASEAN이 회원국이나 역내국가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소극적인 지역기구에서 벗어나 국제문제에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2. APEC에 대한 견제역할

ASEM 출범에 있어서 ASEAN의 중요한 의도는 대외적으로는 자유·공정



무역 질서를 주창하면서 실제로는 일방적인 접근을 보여 온 미국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깔려있다는 것이다.(이상균, 1998)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를 통해서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APEC을 통해 아시아 주요 국가와 지역협력을 확대하며 환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 Trans-Atlantic Free Trade Area)를 통해 유럽과의 협력구도까지 주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EU와 ASEAN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의도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ASEAN은 1989년 APEC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APEC에 대한 공통된 입장은 사라왁(Sarawak)의 꾸칭(Kuching)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sup>1)</sup>

꾸칭합의에서 나타난 ASEAN의 APEC에 대한 입장은 ASEM에서 보여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ASEAN은 APEC의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만, ASEAN의 위상이 약화되도록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ASEAN은 지리적으로 더 큰 범위의 태평양 협력 속에서 ASEAN과 회원국의 아이덴티티와 단결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꾸칭합의에 담고 있다.(변진석, 1996)

또한, APEC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회원국에 의한 일방적 주도권이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1993년 시애틀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APEC을 제도화하고 회

1) '꾸칭합의'는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을 담고 있다.

1. 아세안의 아이덴티티와 단결은 보존되어야 하며, APEC의 발전이 ASEAN의 역내외 관계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2. APEC의 발전은 경제발전 단계와 정치체제의 차이를 고려한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3. APEC은 폐쇄적 경제나 무역블록을 형성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세계적 차원에서 개방되고 다자적인 무역체제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4. APEC은 경제문제에 관한 협의의 포럼을 제공해야 하며, 강제적 명령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5. APEC은 회원국의 경제 분석능력 제고에 힘써야 하며, APEC은 협의를 통해서 공통의 이해를 밝히고 촉진하며 보다 광범위한 다자적 포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6. APEC은 향후 발전과 확대에 저해 받지 않으면서 점진적이며 실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APEC의 제도화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의 수준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고 '경제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국은 APEC 내의 무역자유화 일정을 확정하고, APEC가 회원국 정부를 구속할 수 있는 교섭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시도는 ASEAN의 적극적인 반대로 상당 부분 회석되었다.<sup>2)</sup>

1993년이래 APEC의 위상이 제고되자,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ASEAN은 1996년 ASEM 창설에 능동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APEC에 대한 견제역할을 기대하고 있다.(Leifer, 1995)

ASEM의 창설은 ASEAN에게 있어서 EU와의 단순한 협력 확대의 차원 뿐만 아니라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역내 주도를 방지하고, ASEAN 스스로 ASEAN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APEC이 EU의 강력한 지역통합 추진을 견제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던 것처럼, ASEM 역시 APEC 내에서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ASEM은 미국 중심으로 편중된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받치는 균형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력 불균형 현상은 비단 경제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Higgot, 1998) ASEM이 경제분야 이외에 정치·안보와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있는 이유 역시 양 지역 간의 포괄적 협력강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증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때로는 문화적 결속이나 인식의 공감대가 제도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ASEM은 ASEAN의 영향력 신장에 편승하여 동남아와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유럽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ASEAN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유럽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SEAN은 ASEM에 한·중·일 3국을 포함시키는 과제에 앞장섰는데, 이는

---

2) 말레이시아 아지즈(Aziz) 통상장관은 APEC이 위원회나 실무반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APEC이 본래 계획했던 것 이상을 넘어서는 급격한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태국의 프라송(Prasong) 외무장관 역시 APEC의 무역 자유화는 협의를 통해서 이룩해야 하고 APEC이 합의와 유연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Soesastro, Hadi(1995), "ASEAN & APEC: Do Concentric Circles Work?" The Pacific Review 8, No. 3. pp. 483~485.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ASEM이 EU-ASEAN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동북아 3개국의 참여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EU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비(非) EU회원국들의 ASEM 참여도 봉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ASEAN은 한·중·일 3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는 EU의 카운터파트로서 ASEAN 역할과 비중을 제고하는 ‘최선의 대안(best alternative)’이었다. 동아시아는 ASEM을 계기로 최초로 역내협력의 매개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ASEAN은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그동안 EAEC의 창설을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미국과 호주 등 역외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ASEM에서 ASEAN과 한·중·일은 유럽의 전략에 대한 공동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ASEAN은 유럽과 달리 미약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협력의 활성화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ASEM 창설 이듬 해인 1997년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 한·중·일 3국의 국가원수를 초대하는 형태로 최초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일천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ASEM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ASEAN 역시 ASEM을 통해서 직접적인 결실을 얻어낸다는 정책 목표 보다는 오히려 ASEAN+3의 활성화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M.C.Abad, Jr., 1996)

### 3. EU의 협력경험 도입

ASEAN이 지난 1967년 창설 이래 이루어 놓은 동남아의 평화·안정·중립화의 노력은 분명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ASEAN이 경제분야의 경우처럼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EU의 경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ASEAN이 단기간에 EU와 같이 높은 수준의 지역협력을 성취하기는 어렵겠지만, EU 모델이 ASEAN의 협력강화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한 국가의 시민이자 지역 주민이듯 하나의 국가 역시 국제사회의 한

국가로서 역내 특정 기구 회원국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EU는 이 두 가지 지위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는데, 특히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나 시민사회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Jusuf Wanandi, 1999) EU는 역내에서 국가의 주권이 제한받는 것에 대해 쉽게 적응해 왔기 때문에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왔다. 이에 비해서 ASEAN의 지역협력은 그 주도권이 분산되어 있고, 민간부문이나 기업의 역할은 현재까지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협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경제위기 당시에도 ASEAN국가들의 주요 관심은 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서 ASEAN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ASEAN회원국들의 경제위기가 동남아국가들이 지내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외부적인 원인들도 있었으므로 만약 ASEAN이 긴밀한 지역협력을 통한 정책공조가 가능했다면, 충격을 완화하고 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ASEAN의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이 약화되었을 때 이를 뒷받침할 민간부문의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SEAN의 무용론(無用論)까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ASEAN은 세계화란 빠른 변화 속에서 ASEAN 비관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역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협력에 성공한 오늘날의 EU도 1970년대에는 소위 '유로 경화증(Euro-Sclerosis)'을 경험하면서 지역협력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세밀한 계획과 탄력적인 공조 프로그램으로 이를 극복하였다.(구갑우, 1996)

동남아공동체(Southeast Asian Community)를 형성한 ASEAN의 저력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1998년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ASEAN은 당시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AFTA와 ASEAN투자지대(AIA: ASEAN Investment Area)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동남아 지역협력의 필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ASEAN은 기존의 합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 이후 제기되고 있는 금융부문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와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분야에서의 협력

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이른 논의가 되었지만, ASEAN은 공동화폐를 제안한 바 있는데 EMU (유럽통화연맹)은 향후 ASEM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이다.(박번순, 1998) 회원국 확대문제와 NGO의 역할 증대 등 ASEAN은 향후 EU의 경험을 보다 많이 습득할 것으로 보이며, ASEM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협동의 장(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IV.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

### 1.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ASEAN

ASEAN이 한때 지역협력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을 포함한 범지역적 협력체가 등장할 경우 하위급 지역 협력체인 ASEAN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ASEAN 회원국들은 미국과 일본 등 역내국가들 보다 압도적 우위의 선진국들과의 대등한 협력관계가 부담스러웠던 점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ASEAN은 곧 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우선, ASEAN국가들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활력을 인정하고 이에 동참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점이다. ASEAN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필연적인 상호의존의 심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일본과 중국이 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요한 중심의 하나로 등장하였는 데, ASEAN이 지역협력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오히려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변진석, 1996) 1990년대에 진행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세계체제의 변화도 ASEAN의 입장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ASEAN 국가들은 과거 보호주의적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포기

하고 수출주도적 경제성장과 함께 선진국의 시장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사회주의권 국가의 ASEAN 가입을 촉진시켰고, 동남아는 ASEAN 10을 형성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안은 1997년 발생한 동남아 금융위기에 APEC나 ASEM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부적인 이견에도 불구하고 ASEAN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동남아와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배공찬, 1995)

ASEAN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동북아 주요 국가와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관계의 긴밀화를 위하여 ASEAN은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북아 3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서 설립키로 한 ASEAN 금융감시체제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이흥규, 2000)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ASEAN의 입장은 동아시아 내의 역내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근거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지역주의와 국제무역질서가 제반규정보다는 시장의 크기에 근거한 정치적 파워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EAEC 역시 ASEAN이 APEC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미국 등 강대국 주도로 압력을 행사하는 되거나 선진국들이 자신의 유리한 지배의 제도화와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1990년 12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국제통상 협상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역내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로만 구성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 Economic Group)의 창설을 제안했었다. 마하티르의 EAEG 구상은 당시 UR협상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이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UR협상에서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마하티르는 EC(당시)와 NAFTA 등 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미국의 극심한 반발과 함께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일부 ASEAN 회원국들조차 EAEG가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원래의 구상을 완화하여 보다 느슨한 형태의 EAEC를 새로이 제안하였던 것이다.(심승진, 1991) EAEC는 ASEM을 계기로 ASEAN+3이라는 다소 변형된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ASEAN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EAEC를 제안한 주요한 배경 중의 하나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동남아국가들의 반일(反日)감정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꾸준한 현실주의적 외교노력과 엔화절상에 따른 일본의 직접투자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따라서, 동남아국가들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대해서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ASEAN 주도로 시작된 ASEAN+3은 협력레짐으로 동아시아에 가장 적절하고 안정적인 모델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ASEAN은 역내 패권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경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하던 지역화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정책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협력의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동아시아의 구성국가 모두가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가 충분히 지역화되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공조협력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후 서방 중심의 IMF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각국은 더욱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 2. 전환기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협력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Grunwald, Wionszek and Latin, 1972)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란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적인 경제논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이익 또는 손실의 배분을 둘러싼 협상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 전환국이 지역단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潮流)가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역협약체 구성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었으나, ASEAN이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비공식 정상회담에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 정상을 초청함으로써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향후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3은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으나, 동북아와 동남아 정상들이 함께 모여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지금까지 경제적 네트워크에만 의존했던 지역협력의 과정이 미진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거울 삼아, 정부차원의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협력에 대한 논의와 공동의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적인 수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ASEAN+3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상들이 동아시아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공감하던 차에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을 제안하였다. EAVG란 21세기 동아시아 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역내 정상들은 이 제안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유대를 포함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EAVG는 지역내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미진한 협력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협력의 현황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동아시아의 다른 협력체들에 참여하는 지역 간 그리고 역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중장기 비전을 형성함에 있어 비전그룹은 무역·투자·금융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동아시아의 잠재력을 계발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협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전그룹은 동아시아 역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역내국가들의 지역협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한 차원 제고하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 논의는 APEC이라는 보다 큰 테두리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AMF·역내감시체계·토빈세 도입·통화협력 등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정부차원의 협력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SEAN+3 회담의 정례화와 더불어 EAVG가 활성화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실현은 한층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화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던 동아시아 정상들이 회합을 가졌다는 것과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우선 큰 진전이다. 나아가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개방과 금융개방 등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발생하게 된 경제적 불안정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자체 조정된다기보다는 국가 간 정책협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 V. 결 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적 환경변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북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동남아의 ASEAN화(化)는 세계적인 블록화 추세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았다.

ASEAN은 APEC에 참여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APEC의 경제적 중요성 못지 않게 ASEAN의 정체성과 단결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ASEAN 주도의 ASEM창설 또한 ASEAN에게 EU와의 협력차원 이외에도 APEC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여 동남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ASEAN은 ASEM에 동북아 3국(한·중·일)을 포함시키는 과제에 앞장 섰는데, ASEAN으로서는 차체에 EAEG나 EAEC에 준하는 동아시아협력체를 만들어 ASEM에서 카운터파트가 되고 APEC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NAFTA와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데올로기 경쟁시대를 끝내고 경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경제 요소는 다원화되었다. 구(舊)시대의 자본과 기술 이외에도 자원·시장·노동력이라는 새로운 경제 요소가 등장한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EU나 NAFTA의 자본·기술과 차별성을 지닌 동북아의 그것과 근거리에 위치한 동남아의 자원·시장·노동력이 점차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동남아-유럽 관계, 동남아-일본·미국관계, 그리고 동북아-미국의 기존 관계는 국제적인 블록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방향을 맞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주변의 두 가지 기류는 궁극적으로 동남아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SEAN+3은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역량은 EU와 NAFTA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역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이 세계경제질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단기간에 EU나 NAFTA 수준의 협력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역내국가들의 태도와 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자체가 성공적인 협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적·이념적·종교적 이질

성 역시 협력과정에서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가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것처럼, 위기가 극복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역내국가들의 관심과 적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협력의 결실이 구체화되면서 리더십 경쟁이 불거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구갑우(1996), "지역통합의 원인과 결과: 유럽의 사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 김덕주(1998), "ASEM을 통한 21세기 아시아·유럽 협력," 「외교안보연구 3」, 12월호.
- 박광주(1998),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 「아시아와 세계화」(서울: 세종연구소).
- 박번순 외(1998), 「IMF 사태로 본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체제」(삼성경제연구소).
- 배광찬(1995), "EAEC추진전망: 6+3 회동무산을 계기로," 「주요국제문제분석」 95-16.
- 변진석(1996), "아태지역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과 전략: 다자주의와 약소국,"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 변창구(1993), "ASEAN의 집단적 외교: 실태와 전망,"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47」, 8월호.
- 신용대(1996), "EU의 대아시아 중시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EU학 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 EU학회).
- 심승진(1991), "아·태지역경제와 동아시아경제그룹구상," 「국제정세」 4월호.
- 양승윤(1996), 「동남아와 아세안」(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동휘(1996), "국제질서 재편과 동북아지역 협력," 「외교」(한국외교협회).
- 이상균(1998), "ASEM: 평가와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상균(1998), "아시아·유럽간 지역협력의 동인과 가능성: ASEM의 국제 정치경제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제지역연구 8, 2」
- 이연호(1999), "ASEM의 발전과 제문제," 유제건 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서울: 나남 출판).
- 이요한(2000),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변동과 지역협력 방안 연구: 신자유제도주의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흥규(2000),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등장과 3극 체제화," 「World Report」 7. 24.
- 제럴드 탄(1995), 「아세안-경제발전과 경제협력」 권기철·김홍구 역, (서울: 전예원).
- 한국정치학회(1999), 「ASEM 2000: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 증진과 한국의 전략」

- Abad, M. C. Jr.(1996), "Re-engineering ASE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ume 18, No. 3, December.
- Asia-Europe Vision Group(1999),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Seoul. Korea.
- Bilson Kurus(1995), "The ASEAN Triad: National Interest, Consensus-Seeking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6., No. 4, March.
- Camroux, D. and Lechervy, C.(1996), "Close Encounter of a Third Kind?," The inaugural Asia-Europe Meeting, March 1996. *The Pacific Review*, Vol. 9., No. 3.
- Dent, C. M.(1998), "The ASEM: Managing the New Framework of the EU'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sion and Realities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Economic Relations with East Asia," *Pacific Affairs*, Vol. 70., No. 4.
- Dobbs-Higginson, M. S.,(1994), *Asia-Pacific: Its Role in the New World Disorder*, Longman. London.
- Donald Crone(1992), "The Politics of Emerging Pacific Cooperation," *Pacific Affairs*, Vol. 65., No. 1.
- Eero Palmujoki(1997), "EU-ASEAN Relations: Reconciling Two Different Agenda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9, No. 3, December.
- European Commission(1994), *Toward a New Asia Strateg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COM (94) 314.*
- European Commission(1998), *EU-ASEAN Relations: a Growing Partnership*, (Luxemb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Goh, Chok-Tong(1995), "Europe-Asia Partnership for Growth." Speech at the World Economic Forum.
- Grunwald, J., Wionszek M S. and Carnoy M. Latin(1972),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and U. S. Polic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 Harry Harding(1994), "The Cooperative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Janne Nolan(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 Higgot. R.(1998), "The Ghost at the Feast: The Future of ASEM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USA," Paper presented at the 1st Yonsei-Warwick Conference on ASEM: ASEM at Crossroads.

- Joseph Nye, Jr.(1995),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4.
- Kishore Mahbubani(1995),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Vol. 74., No. 1.
- Lawrence, R. Z.(1996), *Realism, Multilateralism and Deeper Integration*,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 Lee, Sahng-Gyon(1998), "The Economic Dimension of ASEM: Toward Asia-Europe Security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st Yonsei-Warwick Conference on ASEM: ASEM at Crossroads.
- Lee, Sahng-Gyon(1999), "The Politics of ASEM: Toward Asia-Europe Security Cooperation,"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 9.
- Leifer, Michael.(1995), "The Issue is ASE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1.
- McCloud, Donald G.(1995), *Southeast Asia: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Westview Press. Boulder.
- Segal, G.(1999), "Thinking Strategically about ASEM: the Subsidiarity Question," *The Pacific Reviews*, Vol. 10., No. 1.
- Soesastro, Hadi(1995), "ASEAN & APEC: Do Concentric Circles Work?" *The Pacific Review* Vol. 8., No. 3.
- Taylor, P.(1993),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Modern World: The Regional and the Global Process*, London: Pinter.

# ASEAN's Policy toward ASEM and Perspectives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Seung-Yoon Yang

In the post-Cold war era,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gradually enhancing cooperation. Asia is recently keeping cooperation with North America especially through APEC forum. For the lagged behind relation with Europe, ASEM is being expected to build a new framework of relation. Against this backdrop, ASEAN has taken an active role in these wider regional cooperation models. However, toward the multi-regional cooperation trends like these, ASEAN has shown double-faced attitudes; an active and positive attitude in regional cooperational policies on the one hand, and a passive and negative attitude on the other. This ambivalent attitude is results from ASEAN's woo that if same international regime is applied to ASEAN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simultaneously under the regional cooperation regulations, ASEAN's identity and unity would be lost or weakened.

Beneath the launch of ASEM, there lies ASEAN's intend to restrain USA's dominant role in the area and to decide it's own future by itself, and ASEM is expected to help out intensifying ASEAN's voic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is means that ASEAN is escaping from small regional cooperation of Southeast Asia and enter the wider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ASEM.

However, in ASEAN's foreign policies toward ASEM, double-faced character above is shown up again. Although ASEAN promoted ASEM

plan and hold the first general meeting, it rejected institutionalization of ASEM and denied the insert of issu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to items. The series of these proofs show that ASEAN is struggling to make a steadfast stance in the relation with EU, which has many conflicting elements with ASEAN in many ways. Under this situation, ASEAN has kept its unique way successfully.

The most interesting thing in this process is that ASEAN led a project to invite 3 East Asian countries, namely, Korea, China, and Japan into ASEM. This is explained in 3 ; First, ASEAN recognized its limitation as a counterpart of EU ; Second, ASEM can be a effective vehicle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which has failed its realization by opposition of some countries. It is convincing that, through ASEM, ASEAN aims at invigorating ASEAN+3 rather than direct fruition from ASEM itself. All things are the kind of countermeasure of Asian countries against current partial situation that international trade order is dependent on political power based on the market scale rather than international regulations ; Third, 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rdependence in East Asian countries is another reason for flowering East Asian cooperation idea formation.

For making close relations with East Asian countries, ASEAN suggested regular summit-level conference with Korea, China, and Japan and joining the TAC(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1990.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ir suggested EAEG, but this suggestion was obliged to be changed to more loosened idea of EAEC.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also suggested East Asia Vision Group which is a group of professionals to make a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region. ASEAN+3 has a great possibility to take root as the most appropriate and stable model of cooperation regime in East Asia.

In conclusion, ASEM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opportunities to



embody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he combination of strong modal ability and technology of Korea, China and Japan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active market ability and low-waged and qualified labour forces of Southeast Asia makes the region economically powerful and if excellent political potential power of East Asia can be manifested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can be one of the most powerful economic order in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 Key Words >

ASEAN's Foreign Policies, ASEM, Regional Cooperation